

특수전문지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참여

어느 분야건 사정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른바 '특수전문지'들이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특수전문지가 다루고 있는 특수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덧붙여 그같은 관심의 충족을 위해 책값이란 대가를 기꺼이 지출할 준비가 돼 있는 '특수한 독자'가 대개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특수전문지의 운명을 순수한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내맡길 경우, 상업적 의미에서의 '홀로서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특수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 있는 업계공동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된다. 가령 "우리 정도의 업계라면 이만한 매체 하나쯤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묵시적인 합의라든지, 혹은 우선 기대되는 눈앞의 직접적인 효과와 무관하게 어떤 한 매체가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는 일의 의미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의식의 공유 같은 것이 광범한 수준에서 이뤄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판저널」은 행복하다. 물론 우리라고 해서 특수전문지 일반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한국출판금고의 재정지원을 비롯해 출판업계나 필자 및 저술가집단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에 힘입어 특수전문지로는 드물게 5년동안 단 한

번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며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금성출판사 지학사 삼성출판사 교학사 동아출판사 등 5개 대형사가 각자별로 본지를 매호 500부씩 일괄구입해주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그같은 이해와 참여의 적극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 5개사의 호의가 본지의 부수신장을 크게 돕는다는 점 말고도, 그것이 단순한 '적선'이라기 보다는 출판업계의 공동선 추구라는 긴 안목에 의해 결정되고 표현됐다는 점에서 반갑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출판업계의 호의에만 신세지겠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본지는 앞으로, 일괄구입이라는 출판업계의 직접적인 호의의 표현에 기대지 않고서도 서평 및 책정보 전문지로서의 자생력을 키우며 일반독자들 사이에 착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강철주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103호 / 1992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鏞鏞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奎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孝彬	琴奉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珍鏞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洋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蕭	申福龍	慎鍾寬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環燕	李光周
李基相	李斗映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載	李重漢
李姬載	林煥燾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雲鍾	鄭雲映	鄭晉錫
鄭鏞弘	曹南鉉	曹大鉉	曹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頌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도지 국유화와 공동경작·분배를 원칙으로 삼은 田論을 주장한 실학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관리들의 지침서인 「목민심서」를 집필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 이렇게 진보성향이 강했던 다산은 주변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해 18년간을 중죄인으로 지내며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학자"란 후세의 평가를 받을 만큼 수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바로 이 유배시기에 두아들과 둘째 형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신을 띄워 학자로서의 덕목과 선비가 갖추어야 할 처신 등을 전했다고 한다. 특히 다산의 편지들 가운데는 공부하는 목적·방법·태도 등을 정리한 것 뿐 아니라 「사기」 「주역」 등 널리 알려진 명저에 관한 견해를 밝힌 글들도 많아 눈길을 끈다. 이번호에는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의 서신을 추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박석무 편역, 창작과 비평사)에 실린 책에 관한 글을 발췌 인용한다.

「사기」와 「예기」 읽는 법

네가 지금도 「史記」를 읽고 있구나 그런데로 괜찮은 일이다. 옛날에 고정림이 「사기」를 읽을 때 本記나 列傳篇을 읽으면서는 손을 대지 않은 듯 대충 읽었고 연표나 월표편을 읽으면서는 손때가 까맣게 되었다 했는데 그런 방법이 제대로 역사책

읽는 법이 된다.

「紀年兒覽」 「大事記」 「曆代年表」와 같은 책에서는 반드시 범례를 상세히 읽어보고 「國朝寶鑑」에서 뽑아 연표를 만들고 더러는 「大事紀」나 「押海家乘」에서 뽑아 연표를 만들어 중국의 연호와 여러나라의 임금들이 왕위에 오른 햇수를 자세히 고찰하여 책으로 만들어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일이나 선조들의 일에 있어서 그 큰 줄거리를 알고 시대의 앞과 뒤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아직도 고리짝 속에 남아 있는지? 없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야. 혹 남아 있다면 그 가운데서 자잘한 일상의 일들은 모두 삭제하고 훈계해주신 이야기와 그렇게 생각해주셨던 말들을 모아 그 시기별로 안내하여 추려서 한권의 책으로 만든다면 좋겠다. 내가 이곳에 있어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기만 하구나.

「사기」를 다 읽으면 「禮記」를 읽도록 하여라. 「예기」 49편은 한군데도 버릴 곳이 없다. 특히 그중에서도 단군, 문황제사, 예기, 내칙, 명당위, 대전, 학기, 악기, 제법, 제의, 애공문으로부터 방기, 표기, 치의, 문상, 삼년문, 유행, 관의 이하의 7편은 모두 다 읽어야 한다. 모두 읽고 나서 다시 곡례 등 읽지 않은 데를 취하여 상세히 의리를 연구하고 사

물의 이름을 세밀히 분석하여 한번 다 읽은 뒤 다시 시작해서 충분히 의미를 알아내면 된다. 이런 정도로 읽어야 예기를 유감없이 읽었다 할 수 있다.

책을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유향은 그 아들 흠이 있었고, 두 업도 임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양보도 진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며, 환영도 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훌륭한 아들이 아버지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경우는 많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다행히 나의 저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후 심오한 뜻을 알이주기만 한다면 내가 아무리 공색하게 자내더라도 걱정이 없겠다.

지식인이 책을 펴내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한사람만이라도 그 책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서이다. 나머지 욕하는 사람들이야 관계할 바 없다. 만약 내 책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면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섬기고, 적대시하던 사람이라도 너희는 그와 결의형제라도 맺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일찍이 선배들의 저술을 보았더니 거칠고 빠진 것이 많은 불품없는 책들도 세상의 추앙을 받는 게 많고, 자세하고 요령 있으며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오히려 배척을 받아 끝내는 사라져버리고 전해지

지 않는 책도 있었다. (중략)

만약 나태하고 경박하며 약삭빠르고 시시껄렁한 농담까지 받아들인다면 비록 그가 말한 내용이 이치에 깊이 들어맞는다 해도 일반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뿌리를 박지 못한 책이라면 자기가 죽어버린 후에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쯤은 당연한 이치일 따름이다. 세상에는 엉성한 사람은 많아도 정통한 사람은 적기 때문에, 누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엄이나 행동을 버려두고 특별히 알아내기 힘든 의리를 알아보려고 하겠느냐?

높고 오묘한 학문의 참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날로 수가 적어져서, 비록 주공이나 공자의 도를 다시 잇고 문장이 양양이나 유향을 뛰어넘고 학술이 있다해도 알아볼 사람은 없어져간다. 너희들은 이점을 알아차리고 우선 천천히 연구하며 먼저 공지를 지니는 마음가짐에 힘써, 큰 산이 우뚝 솟은 듯 고요히 앉는 법을 습관들이고 남과 사귀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먼저 기상을 점검하여 자기가 해야 할 본령이 확고하게 있다는 것을 안 뒤에야 점차 저술에 임하는 마음을 먹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한마디의 말과 단 한자의 글자라도 모든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겨 아끼게 될 거다. 만약 자기 스스로를 지나치게 경시하여 땅에 버려진 흙처럼 한다면 이는 정말로 영영 끝장이다.